

한라시론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소 센터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지역사회 관심 높여야

별써 2024년이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됐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5월부터 주요 관심주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변화이다.

2024년 1월 도청 조직으로 14명 규모의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신설했다. 현재 도정은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7월 기존 조직에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확대 개편해 29명을 배치하고,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배분, 지역 특성 반영한 제주형 광역-기초간 사무배분 등을 추진중에 있다.

이처럼 도정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민들의 관심 정도와 이해도는 물음표이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소는 지난 6월 25일 제주 사회복지계 개편위원회를 중심으로 1년여간(2023년 1월~12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를 추진했다. 최종적으로 행정구역 3개(동제주/서제주/서귀포)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권고(안)이 최종 결정됐고,

산 현황 분석 및 함의로서, 사회복지분야 공공-민간 등 약 300명이 참석해 두 주제에 대한 사회복지현장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현행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체제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부 행정기관으로 타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주민이 직접 시장/시의원을 선출할 수 없고, 스스로 지역을 꾸려갈 수 있는 자치권이 없다.

구체적으로 자치입법권(조례 제정), 자치재정권(예산 편성), 자치조직권(조직 구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현장의 대표적인 의견수렴기구인 제주사회복지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2024 제주 사회복지 현안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때 다루진 주제 중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사회복지 분야 변화, 도 사회복지에

자치도 1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 변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의 이해 제고,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향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은 무엇보다 도민들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어떤 의미인지, 장단점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주민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의 필수요건으로 지역사회의 중요한 변화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도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발전적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되기를 희망한다.

사설

무인헬기 잇단 추락, 사고 원인 규명해야

해양경찰청이 도입한 고가의 무인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1년에 들쭉날쭉 무인 헬기 '루펠E'가 제주 바다에 떨어졌다. 루펠E의 추락사고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3월에는 서귀포시 이서도 남서쪽 142km 해상에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배치된 다른 루펠E가 훈련 도중 추락했다. 제주에 배치된 무인헬기가 연거푸 추락하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74km 해상에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3000t급 경비함정 3012함에 배치된 루펠E가 바다로 추락했다. 당시 3012함은 루펠E를 상공에 띄워 차귀도 해역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사고는 무인 헬기가 함

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통신 두절로 발생했다. 루펠E는 통신 두절에 대비해 함정으로 자동 복귀하는 기능이 갖춰져 있는데 왜 해상에 추락했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루펠E는 해양경찰청이 2021년 12월 원거리 임무 능력 향상을 위해 처음 도입한 장비다. 그동안 불법 조업을 체증하려면 경비함정이 어선과 불과 1km 떨어진 곳까지 근접해 사진을 촬영했다. 하지만 루펠E는 경비함정에서 반경 20km에서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감시 범위보다 20배 넓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1500t급 이상 경비함정에 배치된 7대 중 제주에 배치된 2대가 연속 추락했다는 점이다. 경비함정의 폭넓은 감시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루펠E에 대한 사고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

해수욕장 요금 인하 민간 움직임 확산되길

바가지 요금 논란 등으로 촉발된 제주관광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관광객들의 원성을 샅샅이 들어준 해수욕장의 평상, 파라솔 가격이 잇따라 내렸다. 해수욕장별로 천차만별이던 가격도 일률적으로 통일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제주도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마을회, 청년회 등과 머리를 맞대어 이끌어낸 결과다.

그동안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 요금의 경우 많게는 4만3000원까지 받았다. 앞으로는 2만원으로 내리고, 인화된 가격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도내 지정 해수욕장 12곳 중 11곳이 가격 인하에 동참했다. 해수욕장별로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에 달했던 평상 대여 가격도 50% 인하하기로 했다. 주요 해수욕장에서 3만원~5만원이면 평상

을 대여할 수 있게 됐다. 해수욕장 요금 운영 기준안이 정해지고, 앞으로 정착되면 이용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제주 여행에 나선 관광객들이 어느 해수욕장을 이용하든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바가지 요금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여행 일정을 짜는데도 도움이 된다. 신경써야 할 것은 이러한 가격안하가 오명을 회피하기 위한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가격 인하와 서비스 개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기준안을 마련,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같은 민간의 움직임이 다른 업종에까지 확산돼야 그 효과에 달했던 평상 대여 가격도 50% 인하는 물론, 주요 해수욕장에서 3만원~5만원이면 평상

편집국 25시

즐거운 나의 집



오소봄 편집부 기자 sobom@ihalla.com

글로벌 가구 업체 이케아는 매년 집에 대한 보고서 '라이프 앳 홈'을 발간하고 있다. 전세계 38개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 대한 두 가지 통계가 눈에 띈다. '한국인은 집에서의 생활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집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의외의 결과이다. 한국의 집은 결혼의 필수품, 성공한 삶의 조건, 내 지위의 척도, 재산증식의 수단 등 단순한 거주 목적의 아닌 인생의 목표이자 자기

증명의 지표가 됐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비싸다고 아우성,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진다 고 아우성치는데 정작 집안에서는 만족감을 못 느끼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집에 대한 만족감은 우리가 원하는 집에 대한 이상과 관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바라는 이상적인 집은 '혼자 쉬면서 독서, TV, 취미 등 여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평범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가족이 빠져 있다. '가족과의 좋은 관계', '함께 하는 집안일'에 대한 만족도는 전세계 최하위로 혼자 쉬는 일 외에 대부분을 '업무'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 밖에서 삶이 치열하기에 집안에서라도 편히 쉬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수단이 목적이 될 수 없듯이 이제는 집의 가격이 아닌 그 집에 사는 가족들의 관계에 집중할 때이다.

뉴스-in

기초자치단체 도입·탄소중립 국회 지원 요청

도 "제주현안 관심·지원율" 문화행정 공무원 불참 성토

○...오영훈 지사가 23-24일 국회를 잇달아 방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장과 조은희 의원(행안위 간사)을 만나 주요 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황은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에게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2035 탄소중립 제주 모델 실현 등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을 요청.

이에 신 위원장은 "제주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며, 지방자치 및 분권과 관련 행안위에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

황 원내대표는 "당내에 제주 연구 국회의원이 둘이나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 백금타자

문화행정 공무원 불참 성토

○...제주민예총과 제주예총이 모처럼 함께 민선 8기 제주도정 문화정책에 대한 점검 및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도정과 소통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지만 문화예술행정 공무원의 불참 속 진행되며 문화예술인들이 성토.

24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는 당초 토론자로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해외 출장으로 불참했다. 대체할 문화정책과 공무원도 참석하지 않으며 눈총.

관련해 참석자들은 "실망스런 마음이다", "이것이 제주도 문화예술행정의 현주소"라는 지적과 함께 일회성 공론장으로 끝내지 말고 토론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오은지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신천강공성호(국가유공자·향년 95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가족모지·문중모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구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분묘의 연구자가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82-3644 010-4690-3636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